

세계 커피산업 동향 *

박한울 · 이해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1. 서론

커피는 전 세계에서 하루에 22억 잔이 넘게 소비되고 있는데 그 생산량의 90% 이상이 브라질, 콜롬비아, 베트남 등과 같은 개발도상국에서 이루어지는 반면, 커피의 소비는 주로 유럽 및 미국, 캐나다 등과 같은 선진국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생산국과 소비국의 차이를 반영하듯, 국제커피협회(International Coffee Organization, ICO)에 따르면, 커피는 생산국들에게 있어서 석유 다음으로 외화를 많이 벌어들일 수 있는 상품이다. 그리고 국제시장에서의 거래는 뉴욕과 런던의 선물거래소에서 주로 이루어지는데, 뉴욕에서는 아라비카종을, 런던에서는 로부스타종을 다룬다.

커피의 인기는 길거리 어디에서나 쉽게 찾을 수 있는 커피전문점의 숫자로도 가늠해 볼 수 있지만, 커피를 마시는 다양한 방법이 소개되면서 소비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채워주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스타벅스와 같은 에스프레소를 기반으로 한 베리에이션 음료를 주력 상품으로 하는 커피전문점과 더불어, 최근에는 국가 및 산지별로 다양한 맛을 보여주는 스페셜티 커피를 맛볼 수 있는 카페가

* 본 내용은 국제커피협회(ICO)의 Monthly Coffee Market Report 2012년 7월호 보고서 및 참고문헌을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phu87@krei.re.kr, 02-3299-4278).

지 흔치않게 볼 수 있다. 대규모 커피농장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우리나라는 강릉이 커피의 메카가 되어 매년 커피관련 행사를 하고 있는 것 역시 증가하고 있는 커피의 인기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림 1 커피벨트¹⁾ 및 커피 재배지역



자료: wikipedia, Economics of coffe.

국제적인 움직임으로는 커피 생산 농가들의 열악한 상황을 개선시키려는 노력으로 탄생한 공정무역커피에 대한 관심도 눈여겨볼만 하다. 커피 한 잔의 가격이 커피를 생산하는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하루 일당보다 비싸다는 사실의 부당함을 인지하고서, 커피 구매자들이 농장 노동자들이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커피가격을 기존보다 높게 산정하여 구매하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스타벅스와 같은 대기업에서 공정무역커피가 전체 판매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높지 않으면서,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굳히기 위한 수단으로 이를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의 소리도 있다. 하지만 공정무역커피에 대한 이슈를 공론화하여 소비자들이 이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는 점에서는 과거에 비해 발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관심과 더불어 최근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원가에 비해 높은 커피음료의 가격과 들쭉날쭉한 용량에 대한 문제는 소비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하다.

1) 커피벨트란 적도 아래 위 25도 이내의 커피가 잘 자라는 지역을 말한다. 이 지역 중에 연평균 강우량이 1,500m이상인 열대와 아열대 지역에서 재배되고 있으며, 특히, 남북회기선이 통과하는 23.5도 사이의 고산지대 해발 1~3000m이고 연평균 기온이 20~25도인 지역에서 재배됨.

이렇듯 사람들의 관심과 불만을 동시에 받고 있는 커피에 대한 사실 중 하나는, 이제 커피가 기호식품으로써의 역할을 할 뿐 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커피산업의 동향을 살펴보는 것은 한 상품의 산업에 대한 분석으로서의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우리와 항상 함께 있어 밀접하다고 느꼈지만 사실은 잘 알지 못하고 있었던 면을 엿볼 기회를 줄 것이다.

2. 커피의 종류와 가공방법

세계에서 생산되는 커피원두에는 아라비카종과 로부스타종의 두 종류가 있다. 아라비카종은 풍미가 좋아 주로 레귤러커피(Regular coffee)로 이용할 수 있다. 로부스타종은 카페인 농도가 높고 쓴 맛이 강하여 주로 블렌드(blend)나 인스턴트 커피로 이용한다. 두 종의 원두는 최적의 재배 환경이 상이하다. 아라비카종은 주로 고지대, 로부스타종은 주로 저지대에서 생산된다. 일반적으로 로부스타종이 병충해에 강하여 단위 수확량이 많아 재배가 용이하다고 한다.

커피원두는 커피나무에서 채취한 열매를 가공하는 것이다. 가공 방법에는 물에 씻어 가공하는 수세식과 그냥 건조하는 비수세식(건조식)의 두 종류가 있다. 수세식 가공은 농촌에서의 1차 가공과 가공 공장에서의 2차 가공의 두 가지 공정으로 나누어진다. 1차 가공에서는 과육제거기를 이용하여 커피의 열매로부터 과육을 제거하여 원두를 꺼낸다. 원두를 물에 담가 발효되게 한 후, 씻어서 미끈미끈한 점액을 제거하고 건조시킨다. 이렇게 해서 가공된 원두는 파치먼트(parchment) 원두라 불린다. 가공 공장에서는 파치먼트 원두로 파치먼트(내과피)와 실버 스킨(silver skin)²⁾을 제거하면 생두(生豆)가 만들어 진다. 한편, 비수세식 가공은 제거한 열매를 그 상태로 천일건조(天日乾燥)시킨 다음 외피나 과육, 내과피를 기계로 제거한다.

표 1 아라비카종과 로부스타종의 특징과 최적 재배환경

구분	카페인 함유비율(%)	단위수확량 (kg/ha)	최적 연평균 기온(℃)	최적 강우량 (mm)	최적 고도 (m)
아라비카종	0.8~1.4	1,500~3,000	15~24	1,500~2,000	1,000~2,000
로부스타종	1.7~4.0	2,300~4,000	24~30	2,000~3,000	0~700

자료 : Tanzania Coffee Research Institute "Black Aroma -The Story of Tanzanian Coffee-", 2011.

2) 은빛이 나는 껍질.

로부스타종은 주로 비수세식으로 처리된다. 아라비카종 가운데 수세식으로 가공된 원두는 마일드 아라비카, 비수세식으로 가공된 원두는 하드(hard) 아라비카라 불린다. 커피 원두는 수확 후 바로 과육을 제거하지 않으면 과육 특유의 불쾌한 냄새가 원두에 옮겨져 풍미가 나빠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마일드 아라비카가 품질이 좋으며 가격도 높다.

커피원두의 대부분은 생두(生豆) 상태로 수출된 후, 소비국에서 볶아지며 레귤러커피(Regular coffee)나 인스턴트 커피로 판매되고 있다. 커피원두는 볶으면 풍미 산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볶은 커피원두를 수출하는 것은 수송 시간을 고려한다면 어려운 일이다. 생산국에서 인스턴트 커피(분말)로 가공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초기의 설비투자가 필요하고 노동 집약적인 공업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력이 저렴한 개발도상국에서 하는 이로운 점이 없다. 따라서 인스턴트 커피를 제조하고 있는 생산국은 브라질을 중심으로 소수의 국가에 한정되어 있다. 또한 커피의 생산국의 대부분은 개발도상국이며 진공팩(vacuum packing) 용기 등도 충분하지 않고 볶은 커피원두를 가공한 후의 보존 기술에도 과제가 존재한다.

그림 2 커피 3대 원종 원산지 및 생산량³⁾



자료 : wikipedia, Economics of cof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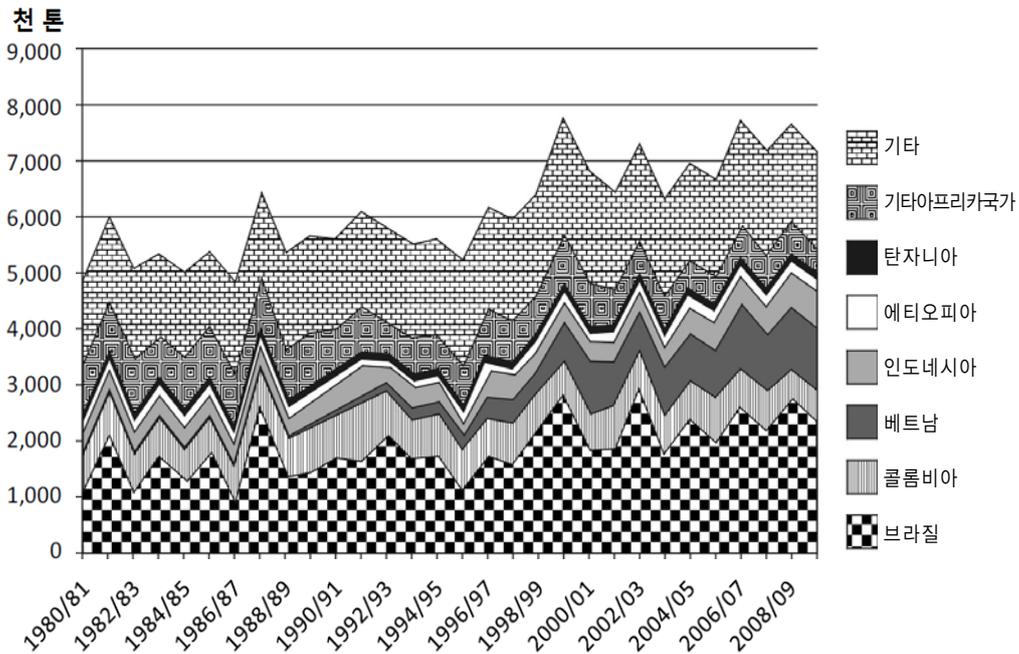
3) 리베리카(Liberica) : 주로 라이베리아, 수리남, 가이아나 국에서 생산되며, 유럽으로 수출되기도 한다지만 대부분 자국 소비에 그치고 있다. 생산량이 극단적으로 적기 때문에 맛보기 힘든 커피이지만, 향미가 떨어지고 쓴 맛이 지나치게 강하다고 한다. 재배하기는 쉬운 편이며, 3원종 중에서 꽃, 잎, 열매 모두 제일 크다.

3. 세계 커피 산업 동향

3.1. 생산

커피의 생산국은 커피 벨트라고 불리는 북회귀선에 근접한 열대의 각 국가들이다. 아라비카종과 로부스타종을 합친 세계의 커피원두 생산량은 1980/81년의 480만 톤에서 2009/10년에는 720만 톤으로 확대되고 있다. 세계최대의 생산국은 브라질이며, 전 세계의 생산량의 약 3분의 1을 차지한다. 베트남은 1990년대 중간 이후 급격하게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브라질에 뒤를 잇는 제2위의 생산국이다. 한편 커피의 원산지인 아프리카는 중남미와 아시아에서의 생산에 크게 뒤지고 있으며, 생산량은 전체 81만 톤으로 세계의 생산량의 11%에 지나지 않는다.

그림 3 주요 생산국별 세계 커피원두 생산량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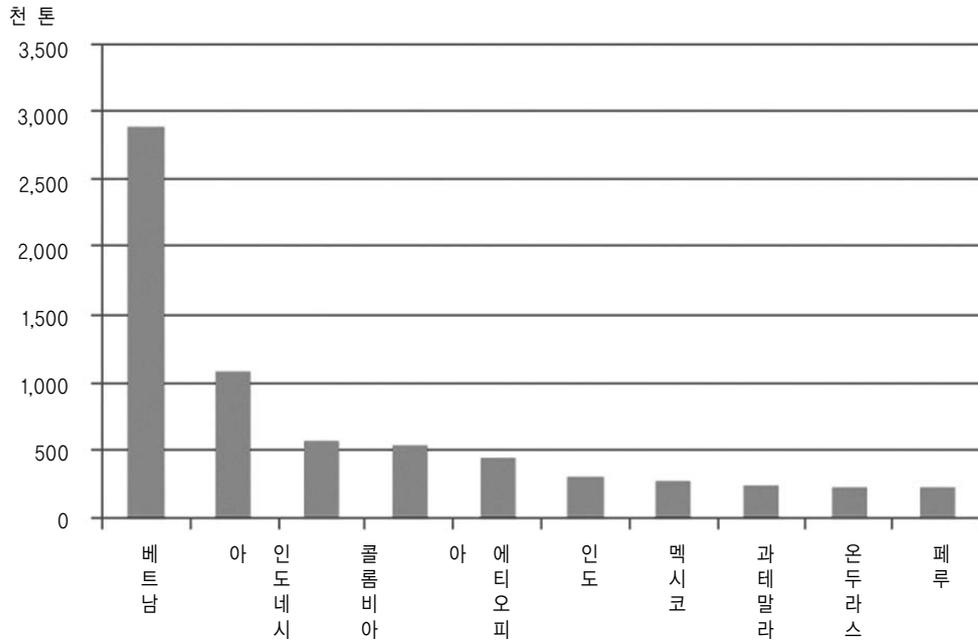
자료 : International Coffee Organization, 2010.

세계의 커피 생산량 상위 10개국 가운데 6개국은 중남미 국가들이며 뒤를 이어 아시아의 3개국, 아프리카는 에티오피아가 제5위에 들어갈 뿐이다. 최근 경기가 상승 추

세에 있는 브라질은 가격이 높은 아라비카종의 생산이 확대되고 있으며 2010/11년에는 생산량이 290만 톤으로 예상되고 있다. 베트남은 주로 로부스타종을 생산하고 있으며, 인스턴트 커피나 에스프레소 등의 브랜드(blend)용으로 수요가 늘고 있다. 베트남의 성공은 아프리카 여러 국가가 실현하기 어려웠던 저가격 커피원두의 대량공급을 실현한 것에 따른 것이다.

현재 약 45개국이 커피를 수출하고 있으며 주요 수출국은 생산 상위국과 흡사하며 생산국은 생산량 대부분을 수출하고 있다. 단지 에티오피아는 커피를 마시는 습관이 뿌리 깊은 관계로 생산량의 약 50% 정도를 자국 내에서 소비하고 있다. 또한 브라질을 비롯한 신흥국도 최근 국내소비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수출량의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그림 4 커피원두 생산량 상위 10개국과 생산량(2010/11)



주 : 브라질, 인도네시아, 인도는 아라비카종과 로부스타종을 생산하고 있으며, 베트남은 로부스타종, 기타는 주로 아라비카종을 생산하고 있음.

자료: International Coffee Organization, 2011.

수확연도 2011/12년 세계 커피 생산량은 약 1억 3,138만 자루로 2010년에 비해 2.2% 감소하였으며, 생산량이 감소된 지역은 수확연도 2010/11년 생산량의 61%를 차지했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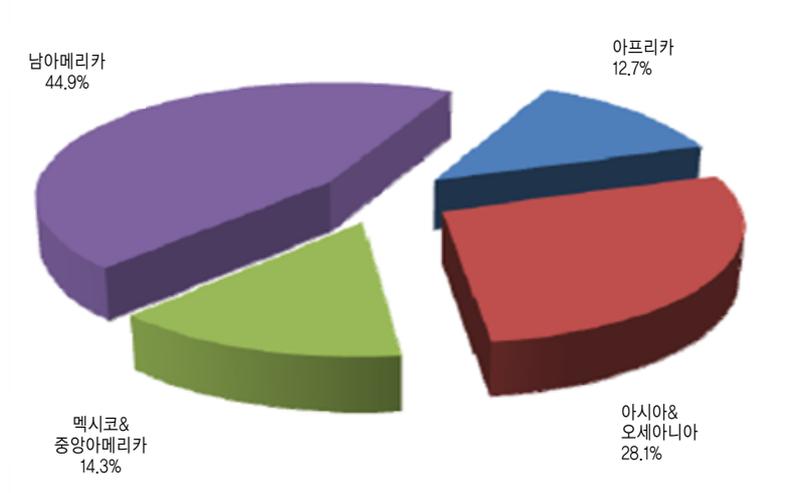
멕시코 및 중미 지역, 그리고 남미 지역이다. 특히 남미에서의 커피생산량은 수확연도 2010/11년 6,289만 자루에서 수확연도 2011/12년에는 5,902만 자루로 감소하였다. 이는 2010/11년 대비 6.2% 감소한 것이며, 2% 감소한 멕시코 및 중미 지역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이다. 반면,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생산량은 수확연도 2010/11년 1,631만 자루에서 2011/12년에는 1,669만 자루로 증가하였고,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지역에서의 생산량 또한 3,604만 자루에서 3,691만 자루로 증가하여, 2010/11년 대비 각각 2.3%, 2.4%의 증가폭을 보였다.

품종별로 보았을 때는 아라비카종의 생산량이 2010/11년 8,523만 자루에서 2011/12년 8,090만 자루로 감소하여 2010/11년 대비 5.1%의 감소폭을 보인 반면, 로부스타종은 4,916만 자루에서 5,048만 자루로 생산량이 증가하여 2010/11년 대비 2.7% 증가폭을 보였다.

수확연도 2012/13년의 생산량은 다소 확실치 않은 면이 있는데, 그 이유는 브라질, 베트남과 같은 생산 대국들에서의 커피 생산량이 증가할 것이라 예측되지만, 기후변화를 겪고 있는 다른 커피 수출국들의 생산량은 감소될 것이라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커피의 생산비는 여전히 높은 상태여서 생산성이 낮은 수출국들은 커피 농장에서의 유지비용을 줄여야만 하는 상황이다. 사실상 생산성이 높은 수출국들만이 생산비의 증가와 커피 가격의 하락이라는 두 가지 악재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5 대륙별 2011/12 커피 생산량



자료: monthly coffee market report-July 2012.

표 2 세계 주요 수출국들의 커피 생산량

단위: 천 자루

구분	2008	2009	2010	2011	전년대비 증감률(%)
총 생산량	128,263	122,658	134,386	131,381	-2.2
아프리카	15,949	15,834	16,306	16,685	2.3
카메룬	750	750	608	1,083	78.2
코트디부아르	2,397	1,795	982	1,600	62.9
에티오피아	4,949	6,931	7,500	6,500	-13.3
케냐	541	630	658	680	3.3
탄자니아	1,186	709	800	534	-33.2
우간다	3,197	2,797	3,290	3,212	-2.4
아시아 오세아니아	34,696	36,886	36,044	36,908	2.4
인도	3,950	4,794	5,033	5,333	6.0
인도네시아	9,612	11,380	9,129	8,250	-9.6
파푸아뉴기니	1,028	1,038	870	1,415	62.7
태국	376	470	579	693	19.8
베트남	18,438	17,825	19,467	20,000	2.7
멕시코 중앙아메리카	17,310	16,894	19,142	18,769	-2.0
코스타리카	1,320	1,450	1,588	1,799	13.2
엘살바도르	1,450	1,065	1,860	1,260	-32.2
과테말라	3,785	3,835	3,950	3,750	-5.1
온두라스	3,450	3,575	4,326	4,500	4.0
멕시코	4,651	4,200	4,850	4,300	-11.3
니카라과	1,445	1,871	1,669	2,100	25.8
남아메리카	60,309	53,044	62,893	59,019	-6.2
브라질	45,992	39,470	48,095	43,484	-9.6
콜롬비아	8,664	8,098	8,523	7,800	-8.5
에콰도르	691	813	854	1,075	25.9
페루	3,872	3,286	4,069	5,492	35.0

주 : 수확연도(Crop year)기준임. 자료 : monthly coffee market report-July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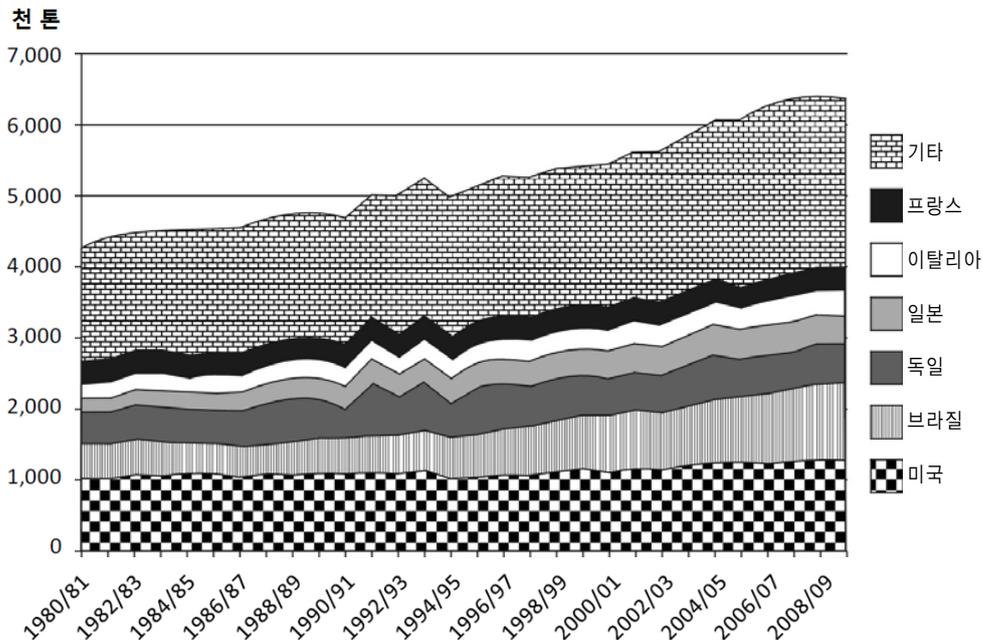
3.2. 소비

커피생두의 소비량 상위 5개국은 미국, 브라질, 독일, 일본, 이탈리아다. 최근은 신흥국의 소비 확대가 현저하며 브라질의 소비량이 1980/81년 46만 톤에서 2009/10년에는 110만 톤으로 65만 톤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2000년 이후 인도네시아가 10만 톤, 베트남이 7만 톤 증가하고 있다. 러시아도 2003년 이후 8만 톤 증가하고 있다.

2009년 기준으로 1인당 연간 소비량은 룩셈부르크가 27.4kg으로 가장 높았고, 뒤이어 북유럽 국가는 10kg을 기록하였다. 다음으로 미국은 4.1kg, 브라질은 5.7kg, 일본은 3.4kg을 소비하였다.

소비국에서는 다른 생산국으로부터 다양한 풍미의 커피를 수입하여 블렌드와 마케팅에 의한 부가가치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세계시장 대부분의 커피 거래는 대형 다국적기업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커피 생산자는 원두의 품질향상에는 어느 정도 관여할 수 있지만, 시장 수요에 입각한 블렌드(blend)나 가공과 같은 가치사슬(value chain)의 하류에서의 부가가치화에는 대부분 관여할 수 없다. 이러한 이익배분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생산국이 가공과 판매를 하고 있으며 생산국 측의 이익의 폭을 넓히려는 시도에 개발도상국 정부가 주목하고 있다.

그림 6 주요 소비국별 세계 커피 원두 소비량의 변화



주1 : 생산국 이외(수입국)에는 국제커피기구에 가맹하지 않은 국가의 소비량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소비량의 합계가 세계 생산량보다 적음.

주2 : 생산국의 수치는 생산연도이지만 생산국 이외(수입국)의 수치는 달력에서의 수치임.

자료 : International Coffee Organization, 2010.

커피의 세계 소비량은 2010년에 1억 3,715만 자루로 2009년에 비해 3.5% 증가였으나 2011년의 잠정적 소비량은 1억 3,790만 자루로 2010년에 비해 0.5% 증가하는데 그쳤

다. 이러한 2011년 소비 증가폭의 감소는 커피의 높은 유통가격과 주수입국들의 경제 침체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표 3 세계 주요국 커피 소비량

단위: 천 자루

구분	2008	2009	2010	2011	전년대비 증감률(%)
총 소비량	132,956	132,464	137,150	137,900	0.5
수출국	37,943	39,798	41,040	42,412	3.3
브라질	17,526	18,583	19,070	19,573	2.6
에티오피아	2,933	3,089	3,253	3,383	4.0
인도네시아	3,333	3,333	3,333	3,333	0.0
멕시코	2,200	2,200	2,239	2,354	5.2
필리핀	1,390	1,770	1,973	2,150	9.0
인도	1,518	1,605	1,713	1,763	2.9
베네수엘라	1,599	1,649	1,650	1,650	0.0
베트남	959	1,068	1,302	1,583	21.6
기타	9,043	9,219	9,460	9,857	4.2
수입국	95,013	92,666	96,110	95,488	-0.6
-기존시장	70,029	69,206	70,979	70,844	-0.2
미국	21,652	21,436	21,783	22,043	1.2
독일	9,535	8,897	9,292	9,460	1.8
일본	7,065	7,130	7,192	7,015	-2.5
프랑스	5,152	5,677	5,713	5,962	4.4
이탈리아	5,892	5,806	5,781	5,689	-1.6
캐나다	3,210	3,273	3,586	3,574	-0.3
스페인	3,485	3,352	3,232	3,149	-2.6
영국	3,067	3,220	3,134	2,926	-6.7
기타	10,970	10,415	11,265	11,026	-2.1
-신흥시장	24,984	23,460	25,132	24,644	-1.9
러시아	3,716	3,131	3,661	3,695	0.9
한국	1,665	1,551	1,666	1,801	8.1
알제리	2,118	2,066	2,021	1,789	-11.5
호주	1,145	1,223	1,370	1,407	2.7
우크라이나	1,733	1,460	1,485	1,324	-10.8
기타	14,609	14,029	14,927	14,628	-2.0

주 : 2011년은 잠정치임. 2008-2011년 소비량은 Calendar years 따름.
 자료 : monthly coffee market report-July 2012.

3.3. 가격

커피는 주요한 국제상품 중 하나이며, 아라비카 커피의 옵션거래와 선물거래는 뉴욕의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intercontinental exchange, ICE)⁴⁾에서 실시되며 로부스타 커피의 선물거래는 런던 국제금융선물거래소에서 실시된다. 또한 기타 싱가포르, 브라질, 도쿄 등에서도 커피의 선물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라비카 커피와 로부스타 커피의 선물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뉴욕과 런던이다.

커피 가격은 하루 중에도 크게 변동하기 때문에 커피 선물거래는 투자 관계자의 주목을 받고 있다. 커피 선물거래는 대단히 복잡하지만, 기본적으로 트레이더(trader)는 커피 “C”컨트랙트(contract)라 불리는 거래소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서로 경쟁한다. 대형 커피 수입업자 등은 대량의 커피를 자사의 창고에 저장해 놓고, 그 때의 가격과 고객 요구에 따라 적당히 판매해 간다. 그러나 이들 업자는 대량의 커피 재고가 있을 때는 가격하락의 위험을 감수하며 재고가 적을 때에는 가격상승의 위험을 감수한다.

그림 7 뉴욕 및 런던의 커피생두 선물가격 변화



자료 : International Coffee Organization, 2011.

따라서 커피의 선물거래에서 대형 수입업자 등은 현시점에서 약정을 맺고, 장래의 일

4) 미국 금융기관.

정 일시에 미리 결정된 가격으로 매매하는 것으로 위험을 회피한다. 설탕이나 면화 등 기타 국제상품과 상이하여 커피의 생산 및 수출은 극진한 보조나 무역 규제가 없기 때문에 투기의 영향을 직접 받기 쉽다. 커피 가격의 안정은 항상 논란의 표적이 되고 있다.

커피의 가격폭락을 피하기 위하여 국제커피기구(International Coffee Organization, ICO)는 1962년에 국제커피협정(International Coffee Agreement, ICA)이라는 국제상품협정을 시작하였다. 국제커피협정은 커피 생산국에 수출 할당을 부과하여 국제시장에 유통하는 커피원두의 양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가격의 침체 방지와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협정의 가맹국은 수출국(생산국)과 수입국(소비국)로 대별되며 가맹 수출국은 국제커피기구의 총회에서 결정된 국가별의 수출 할당량의 범위 내에서 가맹 수출국으로 수출을 한다.

국제커피협정은 일정한 효과를 올리고 있다. 제4차 협정의 유효기간 중(1983~89년)에는 뉴욕 선물가격이 협정이 결정짓는 가격안정대인 120~140센트/파운드를 크게 밑돌 일은 없었다. 그러나 1989년 7월에 주로 이하의 네 가지 이유로 수출 할당 제도가 정지되어 선물가격은 크게 하락하였다.

첫 번째 할당배분이 커피가 주요한 생산지인 중남미 국가에 유리하다고 하는 다른 생산국의 불만, 두 번째 많은 액수의 자금 원조임에도 불구하고, 할당배분의 결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고품질 원두의 확보가 어렵다는 소비국의 불만, 세 번째, WTO 설립에 따른 관리 가격에 대한 우려, 네 번째 최대 소비국인 미국의 국제커피기구 탈퇴⁵⁾가 그 이유이다.

수출할당제도가 정지된 이후에는 주로 최대의 생산국인 브라질의 흉작으로 인하여 선물가격이 큰 파동을 반복하였다. 특히, 2000년대 초에는 선물가격이 급락하였고, 커피 위기로 알려진 사태가 발생하였다. 가격급락의 주된 원인은 수급 불균형이다. 풍작으로 브라질의 공급량이 증가한 데다 신흥생산국인 베트남의 생산이 확대된 것에 의하여, 수요는 1.5%의 성장한데 반해 연간 공급 성장은 3.6%나 되었다. 2001년에는 세계 수출량이 순수입량을 50만 톤 상회하였고, 수입국재고가 120만 톤까지 확대되었다.

그러나 2000년 중반 이후에는 선물가격이 상승하였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브라질을 비롯한 신흥국에서의 소비가 확대된 것과 투기 자본의 유입하여 2010년에는 뉴욕 선물가격이 150센트/파운드를 돌파하였다.

5) 동서냉전종결로 중남미 국가의 공산화 우려 해소에 기인하여 중남미 커피 생산국에 대한 원조 경시함.

국제가격에 좌우되지 않고 커피를 판매하는 방법의 하나로 스페셜 커피로서의 판매가 있다. 예를 들면, 자메이카에서 생산되는 블루마운틴은 그 풍미와 희소성으로 인하여 선물가격기준에 따르지 않고 높은 수준의 안정된 가격이 설정되어 있다.

국제커피기구는 세계 각국에서 생산되는 커피원두를 네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지표가격을 설정하고 있다. 아라비카종은 콜롬비아 마일드(Colombian Mild Arabicas), 아더 마일드(Other Mild Arabicas), 브라질리언 & 아더 내추럴(Brazilian & Other Natural Arabicas)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로부스타종은 로부스타로 한 가지 지표만 있다. 이 지표가격은 미국, 독일, 프랑스의 선물시장에서의 커피생두의 가격을 기초로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콜롬비아 마일드(Colombian Mild Arabicas)의 가격이 가장 높고, 아더 마일드(Other Mild Arabicas), 브라질리언 & 아더 내추럴(Brazilian & Other Natural Arabicas), 로부스타의 순서로 가격이 낮아진다.

표 4 지표가격의 네 가지 분류 및 각 그룹에 포함되는 커피 원두의 산지와 종류

콜롬비아 마일드(Colombian Mild Arabicas)	콜롬비아, 탄자니아, 케냐산 마일드 아라비카
아더 마일드(Other Mild Arabicas)	콜롬비아 마일드 이외 중남미와 아프리카산 마일드 아라비카
브라질리언 & 아더 내추럴(Brazilian & Other Natural Arabicas)	브라질, 에티오피아산 등 하드 아라비카
로부스타	모든 로부스타

자료: Promar Consulting(www.promarconsulting.com).

콜롬비아 마일드는 콜롬비아, 탄자니아, 케냐의 3개국에서만 생산되는 원두이며, 세계 수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9%로 가장 적으며 고급원두로 취급되고 있다. 또한 세계의 수출 시장에서는 마일드 아라비카(Mild Arabicas), 하드 아라비카(Hard Arabicas), 로부스타가 각각 3분의 1씩으로 거의 같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

2012년 7월 ICO composite indicator는 159.07 US cents/lb로 6월의 145.31 US cents/lb에 비해 9.5% 증가하여, 최근 세달 중 가장 높은 가격을 보였다. 이는 지난 9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커피가격이 감소해 왔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중요한 전환기로써 의미가 있다.

표 5 세계 주요국 커피 연평균 가격 및 월평균 가격

단위: US cents/ lb

구분	ICO ⁶⁾	콜롬비안 마일드	기타 마일드	브라질 내추럴]로부스타	뉴욕	런던
월별 평균							
2011.07	210.36	285.21	268.02	245.69	112.73	255.90	103.36
2011.08	212.19	286.97	270.44	249.83	112.07	260.39	102.71
2011.09	213.04	287.54	274.88	255.64	106.06	261.39	96.10
2011.10	193.90	257.66	247.82	234.28	98.10	236.74	88.64
2011.11	193.66	256.99	245.09	236.75	97.24	235.25	85.78
2011.12	189.02	251.60	236.71	228.79	98.41	227.23	87.65
2012.01	188.90	255.91	237.21	228.21	96.72	227.50	84.19
2012.02	182.29	244.14	224.16	215.40	101.93	212.09	88.69
2012.03	167.77	222.84	201.26	192.03	103.57	188.78	91.37
2012.04	160.46	214.46	191.45	180.90	101.80	181.75	91.81
2012.05	157.68	207.32	184.65	174.17	106.88	176.50	96.82
2012.06	145.31	184.67	168.69	156.17	105.70	159.93	94.75
2012.07	159.07	202.56	190.45	175.98	107.06	183.20	96.14
연 평균							
2001	45.59	72.05	62.28	50.70	27.54	58.86	23.92
2002	47.74	64.90	61.52	45.23	30.01	57.02	25.88
2003	51.90	65.33	64.20	50.31	36.95	65.24	34.11
2004	62.15	81.44	80.47	68.97	35.99	79.53	32.85
2005	89.36	115.73	114.86	102.29	50.55	111.38	46.80
2006	95.75	116.80	114.40	103.92	67.55	112.30	59.77
2007	107.68	125.57	123.55	111.79	86.60	121.83	78.56
2008	124.25	144.32	139.78	126.59	105.28	136.46	97.17
2009	115.67	177.43	143.84	115.33	74.58	128.40	67.69
2010	147.24	225.46	195.96	153.68	78.74	165.20	71.98
2011	210.39	283.84	271.07	247.61	109.21	256.36	101.23

자료 : monthly coffee market report-July 2012.

이러한 가격의 증가는 주로 아라비카종에서의 가격상승으로 인한 것인데, 콜롬비안 마일드, 기타 마일드, 브라질 내추럴의 가격이 각각 9.7%, 12.9%, 12.7% 씩 증가하였다. 하지만 이 세 가지 아라비카종의 7월 가격은 지난 12개월 동안의 가격과 비

6) ICO 가격지수는 Composite Price 기준임.

교해보았을 때는 비교적 낮게 책정되어있는 것이다. 로부스타종의 7월 가격은 107.06 US cents/lb로 6월에 비해 1.3%만큼 증가하여 아라비카종과의 가격차이가 6월에 비해 증가하였다.

그림 8 아라비카종과 로부스타종의 지표 가격 차이

단위: US cents/ lb



자료: monthly coffee market report-July 2012.

3.4. 교역 동향

2012년 6월의 총 수출량은 960만 자루에 달하여 5월에 비해 6.1% 감소하였지만 작년 동월에 비해 5.1% 증가한 것이다. 2011/12년(2011년 10월부터 2012년 6월까지)의 총 수출량은 8,120만 자루에 달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지난 해에 비해서는 0.3% 감소한 것이다.

표 6 세계 주요국 커피 수출량

단위: 천 자루

구분	2010/2011	2011/2012	전년대비 증감률(%)
총 수출량	81,406	81,157	-0.3
콜롬비안 마일드	7,648	6,443	-15.8
기타마일드	19,491	20,189	3.6
브라질 내추럴	25,620	22,865	-10.8
아라비카	52,760	49,497	-6.2
로부스타	28,646	31,660	10.5
브라질	26,453	21,834	-17.5
부룬디	269	146	-45.6
카메룬	484	332	-31.5
콜롬비아	6,735	5,636	-16.3
코스타리카	1,065	1,091	2.5
코트디부아르	695	1,233	77.5
도미니카공화국	60	79	32.3
에콰도르	960	1,124	17.1
엘살바도르	1,662	882	-46.9
에티오피아	2,351	1,871	-20.4
과테말라	2,784	2,652	-4.7
기니	333	361	8.6
온두라스	3,582	4,260	18.9
인도	4,644	4,423	-4.8
인도네시아	4,476	5,214	16.5
케냐	509	480	-5.7
멕시코	2,049	2,415	17.9
니카라과	1,340	1,193	-10.9
파푸아뉴기니	605	907	49.8
페루	2,231	2,984	33.8
르완다	218	161	-26.2
탄자니아	710	509	-28.3
태국	312	244	-21.7
우간다	2,125	2,012	-5.3
베트남	13,850	18,325	32.3
기타수출국	246	189	-2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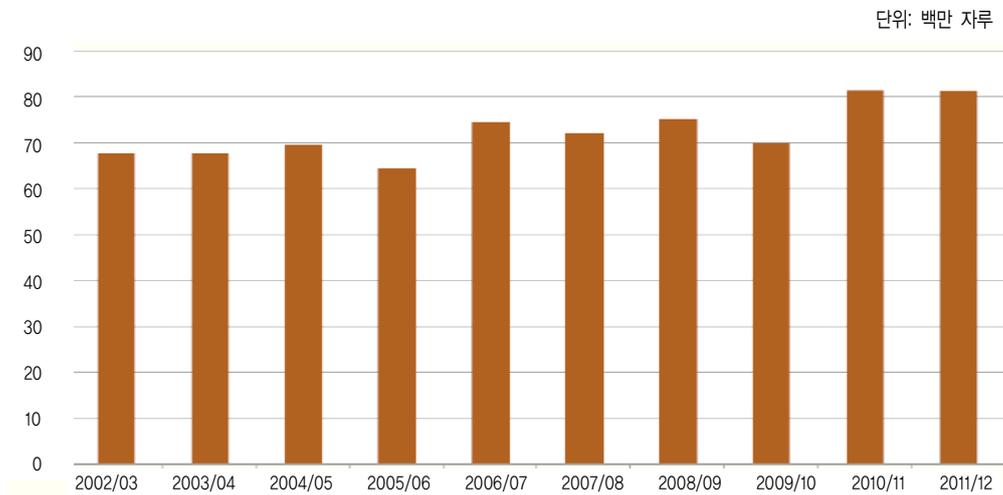
주 : 2010년 10월- 2011년 6월, 2011년 10월-2012년 6월까지의 수출량을 나타냄.

자료 : monthly coffee market report-July 2012.

품종별로 보았을 때, 로부스타종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3.6% 성장률을 기록하여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아라비카종은 연평균 1.2%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아라비카종 중, 콜롬비안 마일드가 -3.9%, 기타 마일드가 2.7%, 브라질 내추럴이 1.8%의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로부스타종의 수출량은 2002/3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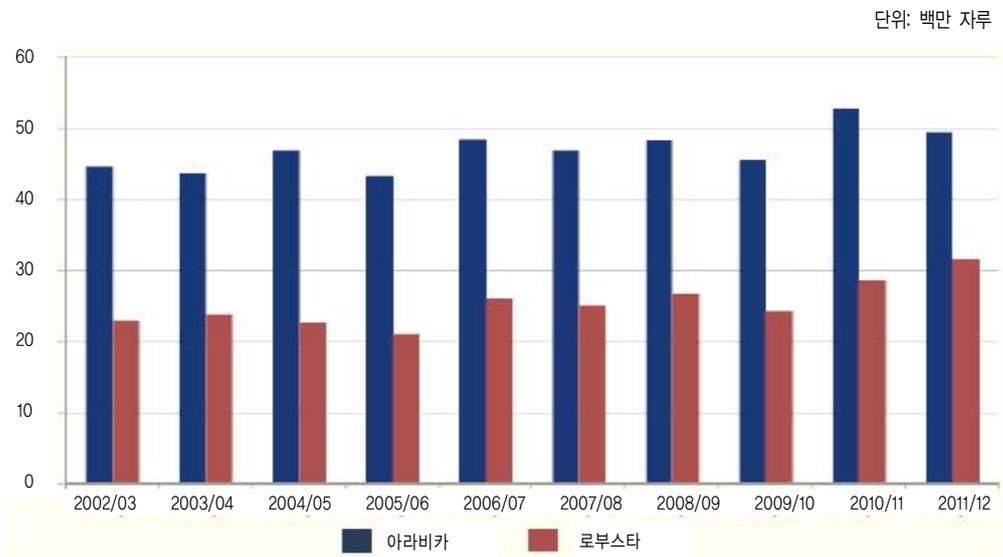
는 총 커피 수출량의 34.1%를 차지했던 것에 비해, 2011/12년에는 수출량이 3,166만 자루에 달해 총 수출량의 39%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림 9 커피 총 수출량(2002-2011년)



주 : 전년도 10월부터 차년도 6월까지의 총수출량을 나타냄.
 자료 : monthly coffee market report-July 2012.

그림 10 아라비카종 및 로부스타종의 총 수출량(2002-201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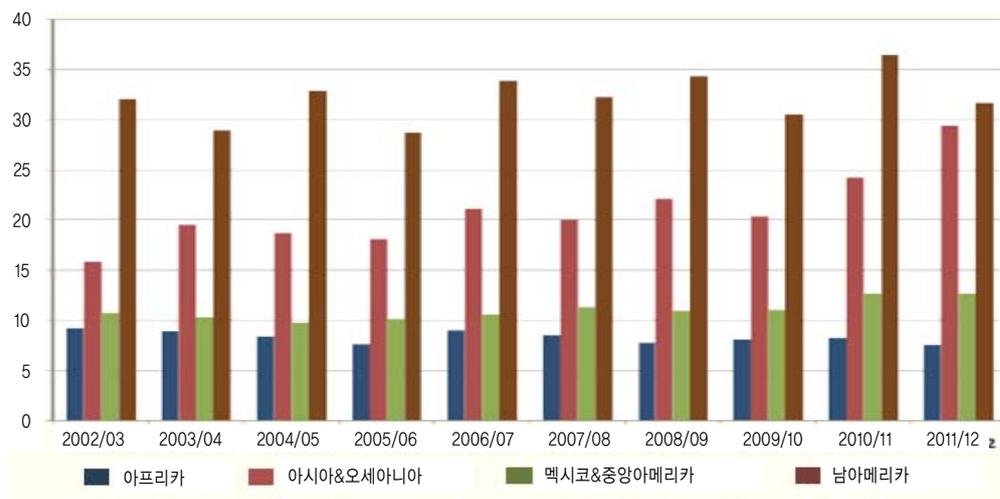
주 : 전년도 10월부터 차년도 6월까지의 총수출량을 나타냄.
 자료 : monthly coffee market report-July 2012.

이러한 로부스타종의 수출 증가세는 베트남 커피 수출량 증가에 힘입은 것인데, 베트남은 2011/12년 수출량이 1,833만 자루에 달해 2010/11년에 비해 32.3% 증가하였고, 연평균 8.4%의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2011년 10월부터 2012년 6월까지의 지역별 수출량을 살펴보면, 아프리카의 경우 에티오피아를 제외한 국가들에서의 수출량이 모두 감소하여 세계 수출량의 9.3%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의 경우 2002/03년의 수출량이 1,580만 자루에서 2011/12년에는 2,930만 자루로 크게 증가하여 세계 수출의 36.2%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베트남을 비롯해 인도, 인도네시아, 파푸아뉴기니, 태국 등 다양한 국가에서의 수출량 증가로 인한 것이다. 멕시코 및 중미 지역의 경우 온두라스, 니카라과, 멕시코 등의 신흥 커피 강국들의 수출량은 증가한 반면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와 같은 기존의 커피 강국들에서는 오히려 수출량이 감소하여, 지역 전체적으로는 연평균 1.9%의 증가세를 보였고, 2011/12년 총 수출의 15.6%를 차지하였다. 남미지역의 경우 2010/11년에 비해 수출량이 감소하였지만, 올해가 바로 2년에 한 번씩 오는 브라질 아라비카종이 생산되어지지 않는 해인 것을 감안하였을 때, 2002/03년의 수출량과 거의 비슷하다는 점이 눈여겨 볼만하다. 남미지역 수출량이 생각보다 많이 줄어들지 않은 이유는 에콰도르와 페루 지역에서의 지속적인 수출 증가세가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1 대륙별 커피 총 수출량(2002-2011년)

단위: 백만 자루



주 : 전년도 10월부터 차년도 6월까지의 총 수출량을 나타냄.

자료 : monthly coffee market report-July 2012.

4. 결론

앞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생산은 2011년 아프리카와 아시아 지역의 생산량은 증가하였지만, 남미와 멕시코 및 중미 지역에서의 생산량 감소로 인해 세계 생산량이 감소하였고, 소비는 2011년 소비증가세는 계속되고 있으나, 높은 유통가격과 경기침체로 인해 소비증가폭은 감소하였다.

가격은 지난 9개월간 가격 하락이 지속되고 있었으나 2012년 7월 커피 가격이 상승함. 아라비카종의 가격이 상승하여 아라비카종과 로부스타종의 가격 차이가 더 크게 나고 있으며, 교역동향은 수출량이 2011년에 비해 감소. 로부스타종의 증가세가 계속되어 총 수출량에서 로부스타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이는 로부스타종을 주로 재배하는 베트남의 수출증가로 인한 것이다.

2012년 커피 가격은 7월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지만, 2001년부터 2011년까지의 연평균 커피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왔다. 이는 1980년대와 90년대 브라질의 작황이 좋지 않아 발생하였던 생산량 감소로 인한 일시적인 가격상승과는 다른 것이다. 2011년 커피 생산량(1억 3,138만 1,000 자루)은 2000년(1억 1,295만 9,000 자루)에 비해 약 16% 증가한 반면, 커피 수출국들에서의 소비는 약 57%(2000년 소비량: 2,710만 8,000 자루, 2011년 소비량: 4,261만 1,000 자루), 커피 수입국들에서의 소비는 약 11% 증가하였다. 즉, 기존 선진국들로 이루어진 커피 수입국들에서보다 신흥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커피 수출국들에서의 소비 증대가 가격을 상승시킨 것이다. 신흥시장 중에서도 브라질과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차 문화가 뿌리박혀 있던 중국과 인도에서의 커피 소비 증가는 눈여겨볼만하다.

이와 같이 신흥국들의 경제 성장과 소비 패턴을 세계 커피의 동향 분석을 통해 볼 수 있다는 것은 하나의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사람들이 카페를 커피만을 마시기 위한 장소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소통을 위해서, 혹은 타인과 분리되어 개인의 자유를 만끽하고 자신의 만족감을 증대시키기 위해 행하는 장소로 여긴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커피의 소비 동향을 통해 사회·문화적인 트렌드 또한 짐작할 수 있다.

과거 카페인의 각성효과에 빠진 지식인과 종교인들이 애용한 이성의 음료가 이제는 사람 사이를 연결해 주고 본인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쓰이는 감성적인 음료가 되었다. 이에 따라 세계 커피 산업의 동향을 분석하는 것은 한 상품에 대한 경제적 분석으로 써의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문화를 알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를

더할 수 있는 것이기에 커피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International Coffee Organization 2010. “Rules on Statistics -Indicator Prices-” .

(<http://dev.ico.org/documents/icc-105-17e-rules-indicator-prices.pdf>)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Security and Cooperatives 2008. “Agriculture Sector Review and Public Expenditure Review 2008/09”.

ICO *Monthly Coffee Market Report 2012-July*.

Tanzania Coffee Research Institute “Black Aroma - The Story of Tanzanian Coffee-”, 2011.

참고 사이트

국제커피협회 (www.ico.org)

FAO. FAOSTAT (www.fao.org)

미국농무부(USDA) (www.fas.usda.gov)